

2013 스포츠 10대 뉴스

# 류·추, 코리안 빅리거 날다



이상화

이후 약 5년 만에 '메이저 킴'이 됐다. 이후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63년 만에 '개막 후 메이저대회 3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 3 한국 축구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한국 축구는 6월 18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A조 8차전 최종전에서 0-1로 패해 4승2무2패로 최종예선을 마감, 이란(5승1무2패)에 이어 조 2위로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난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금자탑을 쌓아올렸다.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하면 통산 아홉 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이다.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은 일본(5회)과 사우디아라비아(4회)를 크게 넘어서는 아시아 최고 기록이다. 또 브라질(20회), 독일(15회), 이탈리아(13회), 아르헨티나(10회), 스페인(9회)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 기록이다.

한국은 월드컵 조추첨 결과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와 함께 H조를 이뤘다.

### 4 김연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피겨 여왕'이 더 우아해진 연기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김연아(23)는 3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막을 내린 2013 국제 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 69.97점, 프리스케이팅 148.34점을 더해 218.31점으로 우승했다.

자신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작성한 역대 최고 기록(228.56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으며 2009년 이후 4년 만에 대회 정상에 정복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왕의 '화려한 귀환'을 알린 무대이기도 했다.

올 시즌에도 오른발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12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골든 스피ن 오브 자그레브'에서 204.49점으로 우승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증명했다.

### 5 삼성, 프로야구 사상 첫 통합 3연패

삼성 라이온즈는 올 시즌 3년 연속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이라는 국내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위업을 달성했다.

삼성은 10월 2일 롯데 원정경기에서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함으로써 1982년 프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규리그를 3연패 했다. 또 지난달 1일 대구구장에서 벌어진 두산과의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 7차전

에서 승리해 4승 3패로 KS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국내 프로야구사에서 통틀어 3연패라는 첫 이정표가 세워진 순간이다. 팀 통산 6번째 한국시리즈 정상이다.

전·후기 통합우승을 차지했던 1985년을 포함하면 7번째 프로야구 챔피언이 됐다. 한국시리즈만 따지면 1986~1989년 4연패를 이룩한 해태(KIA의 전신)에 이어 두 번째 연속 우승 기록이다.

### 6 '빙속 여제' 이상화, 세계신기록 행진

'빙속여제' 이상화(24·서울시청)가 올 한해에만 여자 500m에서 네 차례 세계기록을 새로 쓰며 단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역사를 새로 썼다.

1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월드컵 6차 대회에서 36초80을 기록, 위징(중국·36초94)의 종전 세계기록을 단숨에 0.14초 줄인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 장소에서 새 시즌 첫 무대인 월드컵 1차 대회를 치른 그녀는 36초74를 찍어 자신의 기록을 더 단축했다. 이어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2차 대회에서는 첫날 36초57, 둘째 날 36초36으로 이틀 연속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는 역사적인 페이스를 펼쳤다.

이 종목에서 한 선수가 내리 네 차례 세계기록을 작성한 사례는 '전설' 카트리오나 트메이돈(캐나다·7연속)을 제외하면 이상화밖에 없다.

### 7 농구·씨름서도 승부 조작

스포츠계를 뒤흔든 승부 조작 사태가 프로농구와 씨름으로 번졌다.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3월 강동희(47) 전 프로농구 원주 동부 감독의 승부 조작 사태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감독은 사상 최초로 KBL에서 영구제명됐다.

씨름도 승부 조작 사태로 떠들썩했다. 지난해 설날 씨름대회 금강급에서 맞붙은 안태민(26), 장정일(36), 이용호(28)가 삼급 일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인 한석(44)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첫 공판에서 선수 3명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 8 포항, K리그 극적 우승 '2관왕'

올해 프로축구는 30년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우승팀이 가려졌다.

포항은 울산과의 K리그 클래식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극적인 결승골로 K리그 정상에 올랐다. 국내 선수로만 팀을 꾸린 포항은 조직력과 정교한 패스로 선두권을 유지했지만 시즌 막판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둔 '철벽 축구' 울산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최종전을 앞두고 울산은 승점 73점으로 선두, 포항은 71점으로 2위에 자리했다. 울산은 비기기만 해도 8년만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고 포항은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0-0으로 맞선 후반 추가시간, 경기 종료 1

분을 앞두고 포항 김원일이 프리킥 혼전 중에 날린 공이 울산 골대에 꽂혔다. 포항의 6년 만에 K리그 우승과 FA컵에 이은 2관왕이 달성된 순간이다.

### 9 프로야구 몸값 70억 시대

프로야구 롯데 포수 강민호(28)가 '몸값 70억 원 시대'를 열었다. 강민호는 롯데와 4년 총 75억원(계약금 35억원·연봉 10억원)에 계약했다. 한국 프로야구에 FA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상 최고 금액으로 2004년 심정수가 기록한 4년 최대 6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강민호가 일찌감치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FA 시장이 달아올랐다. 삼성 좌완 장원삼(30)은 4년 60억원에 잔류하며 투수 FA 계약 최고액(종전 박명환 40억원)을 바꿨다. 내야수 정근우(31)가 SK에서 한화로 이적하며 4년 최대 70억원에 사인했고, 외야수 이용규(28)도 KIA를 떠나 한화 유니폼을 입으며 4년 최대 67억원에 계약했다. 이번엔 FA를 신청자 중

KIA 투수 윤석민(27)을 제외한 15명이 사인한 금액은 총 523억 5000만원이다.

### 10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홍명보(44) 감독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올해 6월 24일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축구를 잘 알고 세계 경쟁력을 지닌 지도자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물색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홍 감독을 적임자로 발탁했다.

홍 감독은 한국의 청소년,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가 지휘한 청소년 대표팀은 2009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했고, 23세 이하 대표팀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홍 감독은 같은 팀은 같은 정신으로 같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원팀 원스피리트 원골'(One Team One Spirit One Goal)을 선수단 운영의 기치로 내걸었다.



류현진



양학선

## 도마神·체조요정 한 무대에서 본다

### 내년 4월23일 양학선·손연재 코리아컵 동반 출전

'도마의 신' 양학선(21·한국체대)과 '리듬체조의 요정' 손연재(19·연세대)가 같은 국내 무대에서 연기를 펼치는 모습을 내년 4월 볼 수 있게 됐다.

대한체조협회는 "내년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인천 남동경기장에서 열린 '제2회 코리아컵 국제 체조대회'에 양학선과 손연재가 함께 출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열린 1회 대회 때는 기계체조 종목만 겨뤘으나 내년에는 리듬체조 종목도 함께 열리면 서 두 선수가 한 대회에서 경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대회는 국내 대회인 기계체조 종합 선수권

대회도 겸하게 된다.

협회는 앞서 지난 2011년 기계체조 각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 1~3위 수상자와 국제 체조연맹(FIG) 랭킹 최상위 선수를 초청해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양학선이 자신의 독보적인 기술 '양학선(도마를 정면으로 짚은 뒤 세바퀴를 회전하는 기술)'을 처음 선보여 역대 최고 난도를 인정받으며 런던올림픽 금메달 '0순위'로 떠올랐다. 손연재는 무대에는 올랐으나 리듬체조 경기가 열리지 않아 갈라쇼만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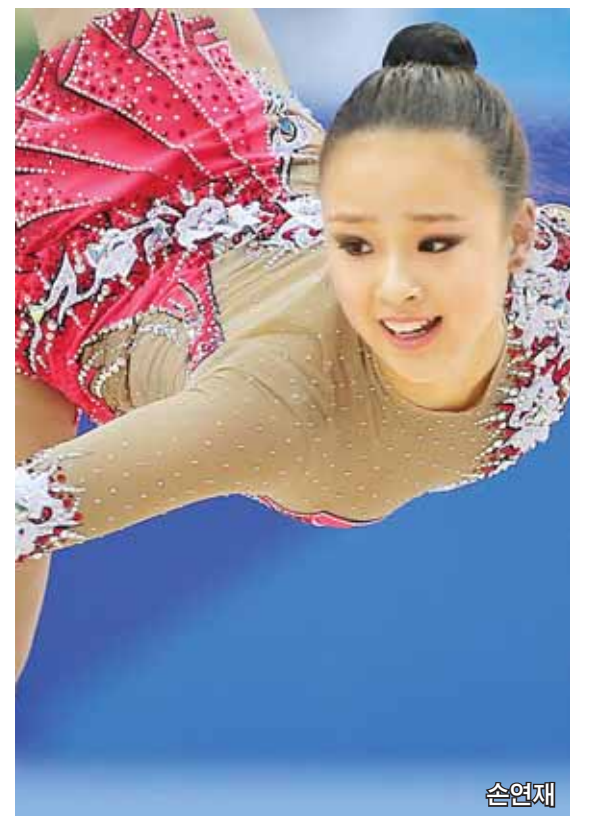
협회는 이번 대회에 런던올림픽 개인종합 금메

달리스트 우치무라 고헤이(일본)나 올해 리듬체조 세계선수권 개인종합 우승자 야나 쿠드랴체바(러시아) 등 세계 최고의 기계체조, 리듬체조 선수들을 초청해 대회를 찾는 관중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특히 양학선이 '쓰카하라 트리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바퀴를 비트는 기술)에서 반 바퀴를 더 도는 신기술 '양학선2'를 이번 대회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체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 손연재까지 가세한다면 코리아컵은 명실상부 국내 대표의 국제 체조대회로 자리 잡을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현재 일반 국제대회 레벨인 코리아컵이 FIG 월드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손연재